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남원시, 투자 선도지구 지정 공모사업 선정… 지역발전 신성장축 기대

남원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투자 선도지구 지정 공모사업'에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달보 철도의 전라선 고속화 등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이 교차하는 유일 환승역인 KTX 남원역 일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은 미래전략산업과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한 공간 혁신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남원시는 오는 2030년까지 KTX남원역세권 14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의 지원과 세제혜택,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개발공사와 민간개발사 등 총 1,958억원 규모로, 교통·산업·정주·문화 기능이 집적화된 영호남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먼저 KTX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민선8기 3대 전략산업인 드론, 스마트농업, 바이오산업이 집적화된 'RIP(지역특화산업프라자)'·'FIP(미래전략산업 프라자)'로 구축하여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해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을 산업 플리자 공간 내 유치하고, 단순 제조산업이 아닌 융복합 R&D에 기반한 비즈니스 쇼케이스로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달빛철도' 개통에 따른 환승역사 조성과 고유의 전통문화·관광자원을 융합해 △지역여행과 관광 연계 푸드랩 △전통문화 기반 청년창업 공간 △체류형 관광하브 등까지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신설 반영에 따른 남원시 역세권 개발계획에 남원시가 가진 산업기반, 문화자원,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이룬 남다른 성과이며, 그간 (주)하림 등 14개 기업과 투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 등을 주효했다"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과로 남원KTX역세권이 산업·주거·관광·산업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개발됨에 따라 지역 내 자족 기능이 대폭 향상되길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대상지의 정주 매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라 KTX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역세권을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남원교도소 신축과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개교,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 등 주거수요 증기에 대비하여 수요 맞춤형 주거단지 공급계획도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비 귀농귀촌인 성공적 정착 돋는다

순창군, 실용교육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예비)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역량 강화를 돋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 귀농귀촌인 실용교육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용교육은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리스타 자격증 과정 △농기계 안전 및 기초 실습 DAI를 활용한 농촌 마케팅 △농촌 생활기술 실습 △예비 귀농·귀촌인 준비교육 등 이론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시민 예비 귀농·귀

촌인 및 순창군에 거주 중인 귀농·귀촌인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일부 과정은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특히 순창군의 인구정책 소개 및 귀농농민들의 생생한 정착 스토리와 실제 성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지

역농업전문가 및 컨설턴트가 참여해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이미 정착한 분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촌정착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풍산면에 있는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을 방문 또는 인터넷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자격 우선순위로 선별되고 모집인원의 60% 미만 시 해당 과정 미개설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본격 실시

임실군이 최근 사료 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하계 조사료 수확 대행 협의회와 농기계임대사업 협의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곤포사일리지 한 룰단 관내 최저가 5천원의 농작업 대행료를 책정했다.

올해 농작업 대행단은 3개 조 8명으로 편성되어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텁피복기 등 관련 농업기계 9대를 확보 옥수수, 수단그리스 등을 수확하여 사료작물을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반기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에 이어 하반기 2기 과정 교육생을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20명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국내 식용곤충산업에 대한 이론과 곤충 농가 방문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곤충 사용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곤충 사용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모집은 곤충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남원시 거주자로,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식중독 사전 예방

순창군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일반·휴게음식점들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통전담관리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재료 사용 시 주의사항과 위생 수칙을 안내하고, 여름철 주요 식중독균에 대한 예방 요령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포스터와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안내표도 함께 작성하여 영업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